

해남 공무원 드론 동아리 '비상' 창공을 날다

30여 명 참여 신속 구조활동 등 맹활약... 자격증 취득도 꾸준히 늘어

해남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드론 동아리 '비상(飛上)'이 구조활동 등 각종 현장업무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창단한 '비상'은 군청 소속 공무원 3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해 취미활동은 물론 위급한 현장 업무 등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매주 주말을 이용해 드론 교육을 받아오면서 회원들의 드론 운용 능력도 향상돼 각종 관련 업무 활용과 더불어 재난 상황 협업 및 실종자 수색 등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현산면과 송지면 실종자 수색 활동에 투입돼 두 차례에 걸쳐 실종인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20일에는 현산면 해남 드론 교육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전문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 처음으로 실시한 실기시험에서 의회사

음으로 실시한 실기시험에서 의회사 무과 이대주 과장과 건설도시과 김태범 팀장이 합격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자격증 취득 회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드론 동아리 '비상'은 꿈꾸다 드론 교육원(대표 신재권), 가온 항공(대표 김도일), 해남 드론 전문교육원(대표 박종삼)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에는 민·관·군·경 9개 기관과 드론협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드론운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정욱 회장은 "드론의 활용은 공무원 개인의 자기개발뿐만 아니라 항공 영상, 사진 촬영, 기상정보 수집, 실종자 수색 등 안전관리, 건축, 조목공사 시공 전·후 비교, 군정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드론 운용을 통해 군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청소년 수당 매월 5만원 지급

문화·취미활동 등 사용... 문화적 박탈감 해소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진도군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만 13세~18세 청소년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년 기준 최대 60만원의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지급해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학원, 서점, 문구점, 안경점, 목욕탕, 이·미용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승인과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조례 제정, 가맹점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월 5만원씩 바우처를 제공,

청소년들이 문화·취미활동 등에 참여해 문화적 박탈감 해소를 비롯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 제도는 소득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다. 그동안 선별적 복지혜택을 받은 일부 청소년들은 취약계층이라는 낙인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은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소방서, 선박화재 대비 소방안전 특수시책 추진

완도소방서는 항·포구 내 선박 밀집지역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선박화재 대비 겨울철 소방안전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항구에 매어둔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선박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유리선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로 내부에는 기름, 가스 등 상당한 가연성 물질이 적재돼 있기 때문에 화재진압 여건도 육상화재 보다 열악하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관내 항·포구 정박선박 중심으로 대규모 화재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완도군, 완도해양경찰서, 완도농협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포트랙(Four-track) 전략을 추진해 안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전의 닻을 내려라' 슬로건과 함께, 4대 중점 추진 전략으로 ▲완도항 인근 폼 호스릴 비상소화전장치함 설치 ▲재난안전지도를 활용한 항구주변 기동순찰 노선 조정 ▲선박내부 축광식 피난안내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선박 탑승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완도=이두식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강진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내일부터 운행

만 6세~18세 대상... 교통요금 부담 완화

강진군이 오는 2월 1일부터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 운영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 100원 이음버스는 만 6세~18세 청소년들이 노선과 거리에 관계없이 강진군 농어촌버스를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아동과 청소년의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의 이용요금 체계를

100원 단일요금으로 변경했다. 할인분에 대한 운수업체 손실분은 강진군에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강진교통(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학교 개학 시기 등을 고려해 2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강진군에 따르면 2022년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중 중고생의 비율은 약 10%로, 100원 이음버스

운영을 통해 중고등학생 기준 매월 1인당 약 2만8000원의 교통비 절약 효과를 가져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제약 없이 고사 했다"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는 강진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주 기자

무안, 건조한 봄철 산불예방 대비태세 돌입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 운영... 산불예방 총력

무안군이 최근 바짝 건조해진 기후 속에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종합대책본부 구성을 위해 일찍이 지난 1월 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30명 선발하고 기존 산림사업장 관리요원과 함께 산불 대응인력 36명을 기동단속반 5개조로 편성하여 설 연휴부터 가동했다.

본격적인 산불 조심기간이 시작되는 2월 1일부터는 군청과 각 읍면에

봄철 산불상황실을 설치하여 전 직원 1/4이 근무하며 산불 예방활동을 펼치고 삼향읍과 해례면에는 진화대원 각 3명씩 별도 배치시켜 원거리 산불발생시 현장에서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림연접지(100m) 주변 인화물질 제거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업부산물 불법소각 및 개별소각행위 금지 캠페인 등 홍보 활동과 집중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통해 산불예

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 인차 헬기를 운영키로 하는 등 산림청·전남도 및 무안소방서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단순 실수에 의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산림피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이 뒤따르게 되므로 군민들께서도 산행간 흡연 금지는 물론 농촌지역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예방 협조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목포, 인공지능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 운영

9개소·18대 설치 운영... 투입 시 포인트 적립

목포시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분리배출을 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9개소에 18대의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유달동·동명동·부흥동 행정복지센터 ▲평화광장 종합관광안내소 앞 ▲육암동 행정복지센터 (이상 2월 개통) ▲신안비치플레이스 1차 아파트 입구 ▲용해동 어울림도서관 옆 인도 ▲원산동 행정복지센터 ▲하당동 행정복지센

터 건너 인도 (이상 3월 개통)이다. 투명페트병 무인 회수기는 자판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투명페트병만 투입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회수기 화면에서 개인 핸드폰 번호 입력 후 투입구가 열리면 라벨을 제거한 깨끗한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된다. 이후 투명페트병은 재활용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된다.

투명페트병 1개당 10포인트씩 적립되며 누적 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 수퍼마켓 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영암, 스마트강소농 육성 '스타트'

내달 24일까지 모집

영암군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에서 오는 2월 24일까지 '스마트강소농'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강소농이란 디지털 장비, 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스마트 농업기술을 도입해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스타트' 스마트강소농을 시작으로, 스마트 농업기술 활용역량에 기반

해 최대 3년간 '성장', '오픈' 스마트강소농으로 3단계 성장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강소농 육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3월부터 그 첫 단계인 '스타트' 스마트강소농 교육을 시작한다.

군은 올해 스마트농업 도입에 필요한 기초역량 함양을 목표로 스마트 농업기술, 스마트 농업경영, 스마트 농산물마케팅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김형두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억의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일 밤속 한숨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 / 왕인문화축제 / 월출산 기차랜드 / 구림전통마을
월출산 국화축제 / 마한축제 / 기차밧길 / 한국로트트거요센터